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및 관련변인 연구*

A Study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김순옥**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 Kim, Soon-Ok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discover general aspects of the kinship behavior shown from singles and also the related variables that had influenced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The research has based on a comprehensive survey with 78 men and 82 women who are single.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ies,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 utilizing the SPSS for Windows 10.0, have been adopt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compil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ngles have shown the ordinary kinship behavior to their orientation families, those are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they had more active kinship behaviors with parents than brothers and sisters.

Second, variables such as pressure to marry, education level, job type, and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have influenced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with parents. While income level have influenced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with brothers, and age, income level, responsibility of care giving and reason for single,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with sisters.

▲ 주요어(key words) : 친족행동(kinship behavior), 독신(single), 원가족(orientation family)

1. 서론

인간은 성장하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가족이었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분가하게 된다. 이렇게 분가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관계가 아니고 친족관계가 된다. 다만, 한때 같은 핵가족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분가하면 이들을 제1차 친족(primary relatives)이라고 하여, 한번도 같은 핵가족에 속하지 않았던 친족들인 제2차 친족과는 구분이 된다(Adams, 1980). 일반적으로 1차 친족인 원가족에

대해서는 원가족 이외의 다른 친족인 2차 친족과의 관계와 구분하려는 의식이 있으며, 성장 후 분가하여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하여 자신의 출산가족을 형성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친족행동을 조사한 실증연구(김순옥·김수진, 2002)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신으로서 원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독신은 자신의 출산가족이 없기 때문에 원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출산가족이 있는 기혼자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원가족 또는 인척과의 관계를 친족행동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나 독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전체가구 중 독신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00년 15.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김순옥(sokim@skku.ac.kr)

신가구를 가족형태의 한 대안으로 보고, 그들의 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서, 독신의 원가족(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친족행동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정도는 어떠하며, 원가족 중 누구와 어떤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

둘째,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친족행동의 유형

친족행동이란 친족원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친족행위의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정진현(1993)의 연구에서는 친족행동을 사교행위, 가사협조행위, 의례적인 행위로 나누었는데, 사교행위는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평소에 자주 상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친족간에 친목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가는 행위, 휴가나 방학 때 친족집에 놀러가서 지내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가사협조행위는 친족상호간에 개인적인 또는 집안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대방과 피상당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일에 봉착했을 때 금전적인 무상 원조 또는 대여하는 행위, 혼례·제례·상례·회갑잔치 등 집안의 대사(大事)때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례적인 행위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때, 기제사(忌祭祀) 때, 웃어른의 생신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집안의 대사(大事) 때, 그리고 친족원이 아플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상호 방문하여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의 친족 행위이다. 의례적인 행위는 사교의 행위, 가사협조의 행위에 비해서 빈번히 수행되어지고 있는 친족행위라고 하였다.

한편, 이동원(1984)의 연구에서는 의례적 관계, 정서적 관계, 일상적 도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광자(1988)는 의례적 관계, 여가활동,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으로 구분하였다. 이원주(1989)의 연구에서는 친족 행동을 부부에 관한 일, 자녀에 관한 일, 자기 자신에 관한 일, 경제적인 일, 직업 및 사업에 관한 일, 여성의 경우 일반가사에 관한 일, 친족에 관한 일, 관혼상제에 관한 일을 그 내용으로 하여 물질적, 심리적, 의례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김성희(1992)는 친족관계 상호작용을 의례적 관계, 사회적 활동,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미경(1992)의 연구에서는 친족접촉내용을 일상적 관계, 의례적 관계,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 심리적 도움, 위기시 도움

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원(1993)은 결혼 초기 부부의 부모와의 유대를 연구에서 부모와의 유대 각 하위영역을 회합적 유대, 기능적 유대, 애정적 유대, 합리적 유대로 설명하였다. 오명희(1997)는 친족관계망 밀접도의 연구에서 친족관계를 정서적, 일상적, 경제적, 친교적 관계로 나누었으며, 박시라(1999)는 친족유대를 기능적, 친목적, 의례적 유대로 분류하였다. Bengtson(1991)은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를 회합적 유대, 기능적 유대, 애정적 유대, 규범적 유대, 합리적 유대, 구조적 유대로 구분하였다.

종합하면, 친족행동 유형은 평소 자주 상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친족상호간에 문제 해결이나 가사에 대한 협조를 주고 받는 등의 일상적 행동, 명절이나 집안의 대사(大事) 때에 상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휴가를 같이 보내는 등의 친교적 행동,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무상으로 원조하거나 대여하는 경제적 도움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2.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

독신자의 친족행동은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을 정리하고자 한다.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으로는 선행연구들(김성희, 1992; 김수진, 김순옥, 2001; 김순옥, 김수진, 2002; 박시라, 1999; 이광자, 1988; 이동원, 1984; 이원주, 1989; 이효재, 1971; 전미경, 1992; 정진현, 1993; 한남제, 1988)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구사회적 변인과 원가족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독신의 친족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자와 공동연구진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독신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1) 인구사회적 변인

(1) 학력

아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정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 친가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수준이 높아지며, 시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감소하는 반면, 친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증가한다(이동원, 1984). 한남제(1988)도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친가와와의 접촉률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경원(1989)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가와 일상적인 행동이 수준은 높지만, 양가와와의 의례적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주부의 교육수준은 시가부모님이나 친가부모님의 영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이영희, 1988), 남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목적 유대에서 본가지향성을 보였다(박시라, 1999).

1) 본 연구는 독신을 대상으로 한 여러 분야 연구 중의 한 분야임.

(2) 직업

아내의 취업유무와 관련된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여성은 시가 친족보다 친가친족을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으며 친가와 의 유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이원주, 1989; 이광자, 1988),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친가 형제자매와 일상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친가 형제자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김성희, 1992).

직업에 따라서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진현(1993)의 연구에서는 직업적 위세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직업적 위세가 낮은 사람일수록 친족관계가 강했으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Hendrix, 1979)에서는 노동자계층에서 친족간의 접촉이 더욱 빈번하였다.

(3) 소득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총소득이 높을수록 친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으며(이동원, 1984; 전미경, 1992), 시가와 의 의례적 유대는 낮아지는 반면에 친가와 의 일상적 행동이 증가하였다(김경원, 198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입이 높은 층에서 양가와 의 관계가 모두 활발한 것으로 보였으며(이효재, 1971),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친족간의 실제협력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한남제, 1988). 또한 박시라(1999)의 연구에서도 기혼남성이 자신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친가와 의 친목적 유대와 의례적 유대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핵가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성희(1992)의 연구에서는 본인이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친가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생활수준이 '하'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유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계층보다 고소득층에서 친가자매와의 유대가 더 높았다.

그런가 하면 Lee(1980)의 연구에서는 빈곤한 계층에서 친족간의 유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4) 기타

위에 열거한 학력, 직업, 소득 외에 성, 연령, 종교, 결혼경험 여부도 개인의 인구사회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2) 원가족관련 변인

(1) 출생순위

만딸보다 그 외의 딸이 남편의 시가친족을 더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원주, 1989), 외딸일 경우가 다른 자녀보다 친가와 의 유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1992).

남편이 장남이나 외아들인 경우에 차남이하인 경우보다 친가 지향적인 기능적 유대와 의례적 유대를 갖는다(박시라, 1999)고 하였으며, 한남제(1988)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장남이 아닌 경우에 친족간의 접촉빈도가 높았다.

남편의 출생순위는 부인의 시부모와의 관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남편이 장남일 경우 시부모와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남편의 형제순위가 장남일 경우에 사회적, 의례적 관계 및 일상적,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성희, 1992; 김경원, 1989).

(2) 지리적 거리

남편과 부인 모두 주거거리 지역이 가까울수록 방문빈도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이광자, 1988),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 자주 왕래하며 간섭하는 친족행동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재, 1971). 또한 같은 지역에 살 때 시가/친가 부모님, 시가/친가 형제자매와의 유대가 가장 높다(김성희, 1992). 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를 연구한 전미경(1992)의 연구에서도 친가와 의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접촉빈도가 많아진다고 하였으며, 박시라(1999)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적 유대 뿐 아니라, 친목적 유대와 의례적 유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근친과의 비공식적인 일상적 만남을 공유하는 수준은 높지만, 시가와 의 의례적 관계와 지리적 근접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김경원, 1989)도 있다.

(3) 기타

위에 열거한 출생순위와 지리적 거리 외에 부모의 결혼만족도, 주위의 결혼압력,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감, 독신은 불효라는 의식을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족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 독신관련 변인

독신관련 변인으로는 독신생활 만족도와 독신 이유를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인구사회적 변인(성,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종교, 결혼경험여부), 원가족관련 변인(출생순위, 원가족과의 지리적 거리, 부모의 결혼만족도, 결혼 압력, 부양책임감, 독신은 불효라는 의식), 독신관련 변인(독신생활 만족도, 독신 이유)과 친족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족행동의 척도는 김수진, 김순옥(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초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표1 참조), 응답은 4점 Likert형 척도이다.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친족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는 가족학 전공자들에 의하여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67 ~ .89로 나타났다.

<표1> 친족행동 측정문항

친족행동	문항
일상적 행동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전화를 하거나 왕래한다.
	일상적인 가사일이나 행사에 도움을 주고받는다.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 일을 상의한다.
친교적 행동	생일에 방문하거나 만난다.
	명절이나 기제사에 만난다.
	휴일이나 휴가에 같이 지낸다.
경제적 도움행동	돈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보조받거나 보조한다.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표2>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문항수	부모	형제	자매
일상적 행동	3	.80	.80	.83
친교적 행동	3	.67	.67	.76
경제적 도움행동	2	.74	.80	.77
전체 친족행동	8	.85	.86	.89

2. 자료수집 방법

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snow ball sampling)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30세이상 50세미만의 독신남녀로서, 독립된 거주지에서 혼자 살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아는 사람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독신 160명으로 남녀 반반 정도이며, 인구사회적인 주요 특성은 30대(76.9%)이고 대학교이상의 학력(92.5%)으로 전문직(30.0%)과 사무직(26.2%)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20.8%인 반면에 250만원 이상도 15.7%이고 나머지 2/3정도(63.5%)는 10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이다. 종교는 있는 경우(50.6%)와 없는 경우(49.4%)가 반반이고, 대부분이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92.5%)이었다(표3).

연구대상자의 원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순위는 첫째(27.8%)와 막내(27.2%)인 경우가 각각 1/4정도씩이고 나머지 절반정도(45.0%)는 중간이며, 부모 형제 자매와는 차로 1시간이상이 각각 2/3이상(69.7%, 76.8%, 66.1%)으로 비교적 멀리 살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결혼생활은 행복하거나(46.9%) 보통(45.6%)이

며, 가족들의 결혼하라는 압력은 있기(38.7%)보다는 없는 경우(61.3%)가 더 많으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감은 없는 경우(65.6%)가 있는 경우(34.4%)보다 더 많으며, 독신이 불효라는 의식은 있는 경우(45.0%)와 없는 경우(55.0%)가 반반이었다(표4).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독신생활만족도는 만족하거나(50.0%) 보통(38.8%)으로 불만인 경우(11.2%)는 매우 적으며, 독신인 이유는 독신주의자(5.1%)이어서가 아니라 적당한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54.4%) 일에 몰두하고 있기(20.9%) 때문이다(표5).

<표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N=160)

변인	구분	N	%
성	남	78	48.8
	여	82	51.2
연령	30-34	95	59.4
	35-39	28	17.5
	40-44	30	18.7
	45-49	7	4.4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	7.5
	대학교	99	61.9
	대학원 이상	49	30.6
직업	전문직	48	30.0
	관리직	2	1.3
	사무직	42	26.2
	자영업	7	4.4
	기술직	14	8.7
	판매/서비스직	10	6.3
	무직	13	8.1
	기타	24	15.0
소득	100만원 미만	33	20.8
	100만원-150만원 미만	31	19.5
	150만원-200만원 미만	49	30.8
	200만원-250만원 미만	21	13.2
	250만원-300만원 미만	15	9.4
	300만원 이상	10	6.3
	무응답	1	
종교	없다	79	49.4
	개신교	42	26.2
	불교	9	5.7
	카톨릭	26	16.2
	기타	4	2.5
결혼여부	미혼	148	92.5
	사별	3	1.9
	이혼	9	5.6

<표4> 조사대상자의 원가족관련 특성 (N=160)

변인	구분	N	%
출생순위	첫째	44	27.8
	중간	71	45.0
	막내	43	27.2
	무응답	2	
부모와의 지리적 거리	걸어서 20분 이내	29	18.7
	차로 30분 이내	18	11.6
	차로 1시간 내외	21	13.6
	차로 2시간 내외	38	24.5
	차로 3시간 이상	49	31.6
부재 또는 무응답	5		
형제와의 지리적 거리	걸어서 20분 이내	13	10.4
	차로 30분 이내	16	12.8
	차로 1시간 내외	29	23.2
	차로 2시간 내외	26	20.8
	차로 3시간 이상	41	32.8
부재 또는 무응답	35		
자매와의 지리적 거리	걸어서 20분 이내	13	11.9
	차로 30분 이내	24	22.0
	차로 1시간 내외	25	23.0
	차로 2시간 내외	20	18.3
	차로 3시간 이상	27	24.8
부재 또는 무응답	51		
부모의 결혼만족도	매우 행복	10	6.3
	행복한 편	66	40.6
	보통	73	45.6
	불행한 편	11	6.9
매우 불행	1	.6	
결혼압력	매우 그렇다	20	12.5
	그렇다	42	26.2
	그렇지않다	76	47.5
	전혀 그렇지않다	22	13.8
부양책임감	매우 그렇다	11	6.9
	그렇다	44	27.5
	그렇지않다	82	51.2
	전혀 그렇지않다	23	14.4
독신은 불효라는 의식	매우 그렇다	8	5.0
	그렇다	64	40.0
	그렇지않다	75	46.9
	전혀 그렇지않다	13	8.1

<표5> 조사대상자의 독신관련 특성 (N=160)

변인	구분	N	%
독신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7	4.4
	만족	73	45.6
	보통	62	38.8
	불만	13	8.1
	매우 불만	5	3.1
독신 이유	독신주의자이므로	8	5.1
	이성/결혼에 대한 불신으로	4	2.5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86	54.4
	가족부양으로 혼기를 놓쳐서	2	1.3
	학업이나 일에 몰두하여서	33	20.9
	사회환경이 독신에 편리해서	4	2.5
	결혼의 중압감/책임감 때문	12	7.6
	기타	9	5.7
무응답	2		

4. 분석방법

SPSS for WINDOW 10.0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F-test와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정도

독신이 원가족과 행하는 친족행동은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친족행동은 4점 만점 중 2.76 ~ 2.97이며, 하위영역별 친족행동은 2.72 ~ 3.01로, 모든 경우에 중간점수인 2.5보다 높다. 그러나 매우 높은 정도라 할 수 있는 3.5보다는 낮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독신은 원가족 중 누구와 어떤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7, 표8과 같다.

모든 친족행동에서 부모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다음이 자매, 형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자매와의 관계보다 많고, 형제보다는 자매와의 관계가 더 많다. 친족행동에 의한 원가족관계는 손수가 보다 가까운 부모와, 그리고 여성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친족행동의 하위영역 중 어떤 행동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행해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상적 행동이 친교적 행동이나 경제적 도움행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친교적 행동과 경제적 도움행동은 부모나 형제자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부모와는 경제적 도움행동보다 친교적 행동을, 형제자매와는 친교적 행동보다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는 정서적 관계가 더 많고, 형제자매와는 정서적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표6>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정도

	부모			형제			자매		
	N	M	SD	N	M	SD	N	M	SD
일상적 행동	157	3.01	.54	125	2.78	.58	108	2.99	.54
친교적 행동	156	3.00	.53	126	2.72	.51	109	2.83	.57
경제적 도움	157	2.87	.66	124	2.76	.66	109	2.85	.66
친족행동전체	156	2.97	.48	123	2.76	.49	108	2.89	.51

<표7> 누구에게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

		부모	형제	자매
일상적 행동	M	3.01	2.78	2.99
	순위	1	3	2
친교적 행동	M	3.00	2.72	2.83
	순위	1	3	2
경제적 도움행동	M	2.87	2.76	2.85
	순위	1	3	2
전체 친족행동	M	2.97	2.76	2.89
	순위	1	3	2

<표8> 어떤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

	부모		형제		자매	
	M	순위	M	순위	M	순위
일상적 행동	3.01	1	2.78	1	2.99	1
친교적 행동	3.00	2	2.72	3	2.83	3
경제적 도움행동	2.87	3	2.76	2	2.85	2

2.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표9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친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학력, 직업, 부모의 결혼만족도, 결혼 압력이며, 성, 연령, 소득, 종교, 결혼경험여부, 출생순위, 부모와의

지리적 거리, 부양 책임감, 불효 의식, 독신 만족도, 독신 이유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친족행동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부모 결혼만족도, 결혼압력, 독신 이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친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결혼 압력 뿐이며,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압력은 모든 하위영역별 친족행동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직업, 소득, 부양책임감은 하위영역별 친족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압력과 부양책임감이 자매와의 전체적인 친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친족행동에 있어서는 형제와의 친족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압력은 모든 하위영역의 친족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소득, 부양책임감, 독신 이유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 압력은 부모, 형제, 자매와의 모든 친족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며, 부모와의 친족행동은 학력, 직업, 부모의 결혼 만족도에 의하여, 형제와의 친족행동은 소득에 의하여, 자매와의 친족행동은 연령, 소득, 부양 책임감, 독신 이유에 의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10 ~ 표12와 같다.

1) 부모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부모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는 표10에 제시되어있다. 40대후반이 30대보다 부모와 친교적 행동을 많이 하며, 대학원이상이 고등학교이하인 경우보다 부모와의 전체적인 친족행동과 친교적, 경제적 행동이 더 많이 하며, 전문 관리직이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보다 부모와 전체적인 친족행동과 친교적, 경

<표9>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

		인구사회적 변인							원가족 관련변인				독신 관련변인		
		성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종교	결혼경험	출생순위	거리	부모 결혼 만족도	결혼압력	부양 책임감	불효의식	독신만족
부모	일상적 행동										***				
	친교적 행동		D	*	*										
	경제적 도움행동			D	*		D			*	*				
	전체 친족행동				*	*				*	*				
형제	일상적 행동		*			D					**				
	친교적 행동					D					*				
	경제적 도움행동				D	D					*	**			
	전체 친족행동										**				
자매	일상적 행동		D								*				
	친교적 행동		D			*					*				D
	경제적 도움행동		D			D					**	**			D
	전체 친족행동										**	*			

<비고> * ;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D ; p<.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Duncan의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나타냄. 탐색적 수준의 연구이므로 가능한 영향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제시함.
 공란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제적 행동이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하거나 보통인 경우에 불행한 경우보다 전체적인 친족행동과 경제적 친족행동이 더 많으며, 결혼하라는 압력이 낮을 때에 부모와의 전체적인 친족행동과 일상적, 경제적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의 이유가 '일에 몰두하여서' 보다 '독신주의'인 경우에 부모와 일상적 행동을 더 적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은 학력수준과 전문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독신과 독신인 자녀에게 결혼하라는 압력은 적게 행사하면서 동시에 부모자신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부모 사이에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변인별 부모와의 친족행동

	변인	구분	M(SD)	Duncan	t값 또는 F값
부모와의 일상적 친족행동	결혼 압력	높다(62)	2.84(.53)		3.407***
		낮다(95)	3.13(.52)		
	독신 이유	독신주의(8)	2.67(.89)	A	1.096
		이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14)	3.00(.55)	A B	
		적당한 상대 못 만나서(85)	3.01(.48)	A B	
		일에 몰두하여서(33)	3.11(.59)	B	
기타(15)		3.04(.55)	A B		
부모와의 친교적 친족행동	연령	30-34(93)	2.97(.48)	A	1.290
		35-39(27)	2.94(.57)	A	
		40-44(29)	3.06(.64)	A B	
		45-49(7)	3.33(.43)	B	
부모와의 친교적 친족행동	학력	고등학교 이하(11)	2.85(.38)	A	3.894*
		대학교(97)	2.93(.49)	A B	
		대학원 이상(48)	3.17(.60)	B	
	직업	전문 관리직(50)	3.12(.57)	A	2.509*
		사무직(40)	3.03(.49)	A B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13)	2.77(.55)	B	
		무직(30)	3.10(.50)	A	
		기타(23)	2.91(.40)	A B	
부모와의 경제적 친족행동	학력	고등학교 이하(11)	2.55(.69)	A	2.634
		대학교(98)	2.84(.62)	A B	
		대학원 이상(48)	3.01(.68)	B	
	직업	전문 관리직(50)	3.08(.68)	A	2.941*
		사무직(41)	2.71(.59)	A B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30)	2.67(.55)	B	
		무직(13)	2.92(.61)	A B	
		기타(23)	2.96(.72)	A B	
	종교	없음(78)	2.89(.60)	A B	2.409
		불교(9)	2.39(.78)	A B	
		개신교(42)	2.92(.66)	A B	
		천주교(25)	2.98(.68)	B	
	부모결혼만족도	행복(74)	2.95(.63)	A	3.475
		보통(72)	2.86(.65)	A	
		불행(11)	2.41(.63)	B	
	결혼 압력	높다(62)	2.71(.62)		2.582**
낮다(95)		2.98(.65)			
부모와의 전체 친족행동	학력	고등학교 이하(11)	2.78(.38)	A	4.002*
		대학교(97)	2.92(.43)	A B	
		대학원 이상(48)	3.12(.55)	B	
	직업	전문 관리직(50)	3.14(.57)	A	2.998*
		사무직(40)	2.91(.38)	A B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30)	2.79(.44)	B	
		무직(13)	3.03(.46)	A B	
		기타(23)	2.94(.37)	A B	
	부모결혼만족도	행복(74)	3.02(.47)	A	3.125*
		보통(71)	2.98(.46)	A	
		불행(11)	2.64(.57)	B	
	결혼 압력	높다(62)	2.85(.44)		2.537*
		낮다(94)	3.05(.49)		

* ; p<.05 ** ; p<.01 *** ; p<.001

<표11> 변인별 형제와의 친족행동

	변인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형제와의 일상적 친족행동	연령	30-34(76)	2.85(.55)	A B	2.795 *	
		35-39(19)	2.82(.69)	A B		
		40-44(25)	2.51(.49)	A		
		45-49(5)	3.07(.64)	B		
	소득	100만원 미만(24)	2.71(.72)	A B	1.029	
		100만원-150만원 미만(26)	2.85(.56)	B		
		150만원-200만원 미만(40)	2.78(.50)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6)	2.90(.55)	B		
		250만원-300만원 미만(12)	2.86(.52)	B		
	결혼 압력	300만원 이상(6)	2.33(.70)	A	3.168 **	
		높다(47)	2.58(.55)			
		낮다(78)	2.91(.56)			
형제와의 친교적 친족행동	소득	100만원 미만(24)	2.65(.63)	A B	1.163	
		100만원-150만원 미만(26)	2.76(.41)	A B		
		150만원-200만원 미만(40)	2.73(.46)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6)	2.85(.53)	B		
		250만원-300만원 미만(12)	2.86(.41)	B		
		300만원 이상(7)	2.38(.62)	A		
	결혼 압력	높다(48)	2.61(.45)		2.077 *	
		낮다(78)	2.79(.53)			
형제와의 경제적 친족행동	직업	전문 관리직(38)	2.83(.76)	A B	1.602	
		사무직(34)	2.60(.59)	A B		
		자영,기술,판매,서비스직(25)	2.76(.48)	A B		
		무직(7)	2.50(.76)	A		
		기타(20)	3.00(.63)	B		
	소득	100만원 미만(24)	2.60(.69)	A B	1.494	
		100만원-150만원 미만(26)	2.92(.64)	B		
		150만원-200만원 미만(39)	2.77(.59)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6)	2.88(.70)	B		
		250만원-300만원 미만(11)	2.82(.60)	B		
		300만원 이상(7)	2.29(.70)	A		
	결혼 압력	높다(47)	2.62(.57)		2.051 *	
		낮다(77)	2.85(.68)			
	부양책임감	높다(46)	2.92(.72)		2.165 *	
		낮다(78)	2.67(.58)			
	형제와의 전체 친족행동	결혼 압력	높다(46)	2.61(.42)		2.845 **
			낮다(77)	2.85(.50)		

* ; p<.05 ** ; p<.01

<표 12> 변인별 자매와의 친족행동

	변인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자매와의 일상적 친족행동	연령	30-34(58)	2.99(.45)	A B	1.451
		35-39(20)	2.87(.70)	A	
		40-44(24)	2.97(.60)	A B	
		45-49(6)	3.39(.49)	B	
	결혼 압력	높다(41)	2.85(.38)		2.266*
		낮다(67)	3.07(.61)		
자매와의 친교적 친족행동	연령	30-34(59)	2.82(.45)	A	1.422
		35-39(20)	2.77(.64)	A	
		40-44(24)	2.78(.71)	A	
		45-49(6)	3.28(.61)	B	
	소득	100만원 미만(24)	2.79(.65)	A B	2.428*
		100만원-150만원 미만(20)	3.12(.36)	B	
		150만원-200만원 미만(32)	2.74(.50)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5)	2.69(.50)	A B	
		250만원-300만원 미만(10)	3.07(.72)	B	
		300만원 이상(7)	2.48(.69)	A	
	결혼 압력	높다(42)	2.70(.43)		2.089*
		낮다(67)	2.91(.62)		
	독신 이유	독신주의(5)	3.27(.43)	A	1.086
		이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12)	2.81(.59)	A B	
		적당한 상대 못 만나서(56)	2.84(.55)	A B	
		일에 몰두하여서(27)	2.73(.59)	B	
		기타(8)	2.96(.58)	A B	
	자매와의 경제적 친족행동	연령	30-34(59)	2.89(.53)	A B
35-39(20)			2.65(.78)	A	
40-44(24)			2.81(.73)	A B	
45-49(6)			3.25(.88)	B	
소득		100만원 미만(24)	2.71(.66)	A B	1.508
		100만원-150만원 미만(20)	3.13(.48)	B	
		150만원-200만원 미만(32)	2.78(.55)	A B	
		200만원-(15)250만원 미만	2.80(.75)	A B	
		250만원-300만원 미만(10)	3.05(.76)	A B	
		300만원 이상(7)	2.57(.93)	A	
결혼 압력		높다(42)	2.64(.47)		2.943**
		낮다(67)	2.98(.71)		
부양책임감		높다(38)	3.09(.62)		2.967**
		낮다(71)	2.72(.63)		
독신 이유		독신주의(5)	3.20(.45)	A	1.685
		이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12)	2.46(.62)	B	
		적당한 상대 못 만나서(56)	2.85(.63)	A B	
		일에 몰두하여서(27)	2.96(.71)	A B	
	기타(8)	2.81(.65)	A B		
자매와의 전체 친족행동	결혼 압력	높다(41)	2.74(.35)		2.740**
		낮다(67)	2.99(.57)		
	부양책임감	높다(37)	3.04(.50)		2.142*
		낮다(71)	2.82(.50)		

* ; p<.05 ** ; p<.01

2) 형제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형제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는 표11에 제시되어있다. 40대후반이 40대전반보다 형제와 일상적 행동이 더 많으며, 소득이 300만원이상인 경우에 200만원 ~

300만원인 경우보다 일상적, 친교적, 경제적 친족행동을 더 적게 하였으며, 결혼 압력이 낮은 경우에 높은 경우보다 형제와의 모든 친족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양책임감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경제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이 높은 독신과 결혼하라는 압력을 적게 행사하는 형제 사이에 친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매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자매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는 표12에 제시되어있다. 40대후반이 30대후반보다는 자매와 일상적 행동과 경제적 도움행동을, 40대후반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친교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00만원 ~ 150만원인 경우보다 친교적,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고, 결혼 압력이 적은 경우에 자매와의 모든 친족행동이 많으며, 부양책임감을 더 느끼는 경우에 자매와의 전체적인 친족행동과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독신의 이유가 독신주의이기 때문인 경우에 일에 몰두하기 때문인 경우보다 자매와 친교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 때문인 경우보다는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40대후반의 고소득 독신이 결혼 압력을 적게 받고 부양책임감을 더 느끼는 경우에 자매와의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서, 독신의 원가족(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친족행동에 근거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정도는 어떠하며, 원가족 중 누구와 어떤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 그리고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으며, 30대와 40대의 독신 남녀 1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친족행동(일상적, 친교적, 경제적 도움행동)의 정도 및 친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개인의 인구사회적 변인, 원가족관련 변인, 독신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독신이 원가족과 행하는 친족행동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모든 친족행동에서 부모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다음이 자매, 형제의 순이었으며, 일상적 행동이 친교적 행동이나 경제적 도움행동보다 많았다. 그리고 친교적 행동과 경제적 도움행동은 부모나 형제자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부모와는 친교적 행동을 경제적 도움행동보다, 형제자매와는 친교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둘째, 결혼하라는 압력은 원가족 모두와의 모든 친족행동 즉 부모, 형제, 자매와의 일상적 행동, 친교적 행동, 경제적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그리고 부모와의 친족행동은 학력, 직업, 부모의 결혼만족도에 의하여, 형제와의 친족행동은 소득에 의하여, 자매와의 친족행동은 연령, 소득, 부양 책임감, 독신 이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높은 학력수준과 전문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독신자녀가 자신에게 결혼하라는 압력은 적게 행사하면서 동시에 부모자신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부모와의 사이에 친족행동을 많이 행한다. 반면에, 형제와의 친족행동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독신과 결혼하라는 압력을 적게 행사하는 형제 사이에 친족행동을 많이 하고, 자매와의 친족행동은 40대후반의 고소득 독신이 결혼 압력을 적게 받고 부양책임감을 더 느끼는 경우에 자매와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몇 가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은 2.76~2.97/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친족행동 중에서는 일상적 행동이 친교적 행동이나 경제적 도움행동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독신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독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의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단정지을 수가 없으나 의존적 독신 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자의 과반수가 부모와는 차로 2시간이상의 먼 거리에서 살면서도 가사일이나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 또는 집안일을 상의하는 일상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주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독립을 하였다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독립하였다고 볼 수 없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신이 완전히 독립한 독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주의의식과 더불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때 같은 핵가족에 속해 있었던 1차친족(Adams, 1980)과는 친족행동을 더 긴밀하게 유지하려는(김순옥, 김수진, 2002) 가족주의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성인이 되는 시점 즉 독립이 결혼과 연관되어 있기(박혜인, 조은숙, 2001) 때문이다.

둘째, 독신은 부모와의 관계를 형제자매와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게 유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초기부부의 친족행동에서도 같게 나타났는데(김수진, 김순옥, 2001) 같은 원가족이라도

부모는 직계혈족이면서 친족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핵가족 의식이 계속되지만,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형제자매가 그들의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면 핵가족으로서의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독신은 남자형제보다도 여자형제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데, 친족행동의 특성이 명절, 생일 등의 의례나 가사 또는 관계지향적인 것으로 여성중심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인형제들은 자매들보다 더 경쟁적이며,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정서적으로 더 지지하기 (Brubaker, 1985) 때문일 것이다.

셋째, 결혼하라는 압력은 부모, 형제, 자매와의 모든 친족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는, 독신 자신이 결혼 압력에 대면하여 저항하기보다는 가급적 회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혼이 미혼보다 더 보편적인 사회임을 독신 자신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독신을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자녀세대에게 부모가 전통적인 형태인 결혼을 강요하면 부모자녀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회피를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대한국가족은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담론인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같은 현상들로 설명될 수 있어(서수경, 2002) 가족의 다양성이 예측되며, 고선주(2002)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50.2%가 '여건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하여 독신 선택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런데 부모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는다면 방해라는 부정적 기능이 발생하여(Barrera, 1981. 원효종, 옥선화 2002, 재인용) 갈등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부모가 결혼을 지나치게 요구하면 갈등회피를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독신의 부모와의 친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근거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요약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고소득의 전문관리직 직업을 가진 40대후반의 독신이 부모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초기부부의 부모와의 친족행동(김순옥, 김수진 2002)에서는 결혼초기부부들의 학력이나 직업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데, 이것은 독신 자신이 확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독신의 형제자매와의 친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근거하여 독신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고소득의 40대후반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막내가 자매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0대후반의 경제적인 여유가 심리적 여유로 작용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외로움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막내가 자매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 것은 막내의 의존적 특성을 시사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나 부계적 의식에 있어서 첫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초기부부의 형제자매와의 친족행동은 소득수준이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김순옥, 김수진, 2002) 부모와의 친족행동에 있어서 독신과 결혼초기부부는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기혼자들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와 왕래가 더 잦아지며(이효재, 1971), 유대정도가 더 강하고(전미경, 1992), 친족행동이 더 많아져(김순옥, 김수진, 2002) 지리적 거리 변인이 기혼자의 친족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독신자의 친족행동에는 지리적 거리 변인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과 독신의 친족행동이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척도에 의하여 기혼자와 독신자의 친족행동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독신에 대한 관심이 주로 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며, 왜 독신을 선택하며, 그리고 독신을 하나의 삶의 정상적인 형태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온 점(이성희, 2002)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신을 삶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그들의 원가족과의 관계 특성을 친족행동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독신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독신의 친족행동이 기혼자의 친족행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후 독신과 기혼자의 친족행동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 접수일 : 2002년 9월 4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1월 29일

【참 고 문 헌】

- 고선주(2002). 네티즌의 가족/친족관련 가치관과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5), 159-177.
- 김성희(1992). 도시 핵가족 주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순옥(2001). 결혼초기 부부의 친족행동 및 배우자의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91-111.
- 김순옥, 김수진(2002). 결혼초기 부부의 친족행동 대상 및 정도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5, 195-214.
- 박시라(1999).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유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 조은숙(200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67-184.
- 서수경(2002).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의 변화. *대한 가정학회지*, 40(5), 95-108.
- 오명희(1997). 친족관계망 밀집도에 따른 부부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 : 도시핵가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효중·옥선화(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도시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조사(1)-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7-36.
- 이성희(2002). 친족행동으로 본 독신의 원가족관계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1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54.
- 이원주(1989).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1992).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현(1993). 한국도시주민의 친족관계와 친족의식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서울: 한국문화연구원.
- 통계청 홈페이지
- 한남제(1988). 도시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22(여름), 35-59.
- Adams, B.(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Anderson, C. & Stewart, S.(1994). *Flying solo: woman in midlife*. N.Y.: Norton Co..
- Brubaker, T.H.(1985). *Later Life Families*. CA: Sage Publications, Inc.. (www.nso.go.kr)